

韓國文學史上 佛教歌辭의 位相

金 周 坤

〈차례〉

- | | |
|---------------------|-------------------|
| I. 緒論 | IV. 佛教歌辭의 文學史的 位置 |
| II. 佛教歌辭 形成의 文學的 背景 | V. 結論 |
| III. 佛教歌辭의 展開樣相 | 參考文獻 |

I. 緒論

佛教系의 歌辭作品은 高麗末 懶翁和尚에 의하여 創作되고 廣布되었다. 즉 歌辭의 嘴矢라고 할 〈西往歌〉의 작가가 僧侶인 懶翁和尚이라는 점은 歌辭文學의 形성과 전개과정에서 佛教歌辭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의 文學은 佛教文學과 더불어 成長하고, 우리 나라의 文化는 佛教와 함께 形成되었음을 감안할 때, 文學研究에 앞서 佛教에 대한 認識을 한층 깊이 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國文學의 여러 形態 중에서도 歌辭文學은 그것이 發生된 계기부터가 佛教와 密接한 관연을 맺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佛教歌辭의 연구는 歌辭文學의 총체적 모습의 파악과 古典文學史 정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既存研究를 보면, 佛教歌辭의 淵源을 梵唄에서 찾고 佛教의 世俗化 곧 大衆化에서 불교가사가 발생하였다고 보았

으며, 發生期·繼承期·全盛期·圓熟期·開化期의 다섯 시기로 나누어 韓國佛教歌辭의 發展過程을 밝힌 研究,¹⁾ 古小說·鄉歌·歌辭 작품에 나타난 佛教思想을 추출한 연구,²⁾ 新羅·高麗·朝鮮의 佛教歌謡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³⁾ 佛教歌辭에 나타난 思想 研究,⁴⁾ 佛教歌辭의 作家와 作品研究⁵⁾ 등이 있고, 韓國佛教歌辭의 形成背景·作家·作品·思想·形成的 特性 등을 綜合的으로 研究⁶⁾한 論文도 있다.

本稿는 먼저 佛教歌辭 形成의 文學의 背景부터 考察해 보고 나서 佛教歌辭의 展開樣相을 살펴본 다음 韓國文學史에서의 佛教歌辭의 位相을 밝히고자 한다.

- 1) 李相寶, 〈佛教歌辭의 研究〉(上), 《東國大 國語國文學論文集》 7·8輯, 1969.
——, 〈佛教歌辭의 研究〉(下), 《明知大 論文集》 第3輯, 1970.
——, 〈韓國佛教歌辭의 歷史的 考察〉, 《明知大 論文集》 第4輯, 1971.
- 2) 金起東, 〈國文學의 佛教思想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3) 金聖培, 〈韓國佛教歌謡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4) 姜學榮,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 明知大 碩士論文, 1981.
高光榮, 〈佛教歌辭에 나타난 諸思想研究〉, 國民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4.
拙 稿, 〈懶翁歌辭에 나타난 净土思想 研究〉, 《慶山大 論文集》 第8輯, 1990.
——, 〈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 研究〉, 《大邱語文論叢》 第9輯, 1991.
——, 〈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 考察〉, 《大邱語文論叢》 第10輯, 1992.
——, 〈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 研究〉, 香山 卞廷煥博士 華甲紀念 《韓國學論叢》, 1992.
——, 〈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研究〉, 《嶺南語文學》 第21輯, 1992.
- 5) 金鍾雨, 〈懶翁과 그의 歌辭에 대한 研究〉, 《釜山大 論文集》 第17輯, 1974.
具壽榮, 〈懶翁和尚 西往歌 研究〉, 《國語國文學》 第62·63 合并號, 1973.
金基卓, 〈懶翁和尚의 作品과 歌辭發生 源源考察〉, 《嶺南語文學》 第3輯, 1976.
崔康賢, 〈鏡虛禪師와 그의 歌辭에 대한 考察〉, 首都工大 論文集 第3輯, 1971.
拙 稿, 〈回心曲 研究〉, 《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4輯, 1986.
- 6) 拙 稿, 〈韓國佛教歌辭研究〉, 大邱大 博士學位論文, 1991.

II. 佛教歌辭 形成의 文學的 背景

新羅時代의 문학에서 무엇보다 특기할 사실은 ‘吏讀’가 창안되어 실용화되었다는 것과 鄉札式 표기법으로 남게 된 鄉歌가 보편적으로 널리 유행되었다는 것이다. 鄉歌의 작가는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에 망라되었지만, 특히 僧侶階層·花郎階層에서 우수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통일 초 불교계의 위인 元曉는 한문학에도 큰 권위였지만 鄉歌作家로서도 이름을 낼렸다. 그의 〈無尋歌〉는 광대들이 舞弄하는 큰 박과 같은 기괴한 도구를 無尋라 이름 짓고,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불렀다는 노래이다. 《三國遺事》 卷四 元曉不羈條를 보면, 그가 ‘無尋’를 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천촌만락으로 돌아다니면서 민중과 함께 ‘南無阿彌陀佛’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생활이 敬虔과 慈悲로 일관된 救世者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大衆佛教로서 종래 너무나 高邁한 行檢과 심오한 철학을 주장하던 불교를 지양하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易行의 불교로서 南無阿彌陀佛의 念佛道를 택하였다. 그는 이 간단한 염불도를 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부자불식간에 불교의 이상인 波羅密多로 생활을 轉化시킨 것이다.⁷⁾

景德王때의 月明師·忠談師, 眞聖女王때의 大矩和尚, 동시대의 華郎·邀元郎·譽忻郎·桂元·叔宗郎은 모두 유명한 향가작가였다. 신라의 향가로서 《三國遺事》에 실린 14수와 고려 초에 《均如傳》에 실린 11수만이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서 국문학상 귀중한 자료로 되어 있다.

新羅의 노래에 佛歌類가 많고 작가에는 僧侶가 많을 뿐 아니라, 작품

7) 李英茂, 《韓國의 佛教思想》, 民族文化社, 1987, p. 114.

내용에도 불교적인 색채가 농후하게 침투하였다. 鄕歌 25수 중에는 均如의 작 11수는 말할 것도 없고, 기타 〈彗星歌〉·〈風謠〉 등 승려의 작이 7 수나 되고, 불교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른바 佛教文學이란 말을 연상하게 된다.⁸⁾

불교시가가 가장 많이 불리어진 시대는 新羅時代이다. 제 27대 선덕왕 때 민중들이 所唱하였다는 〈風謠〉는 불교적인 신앙심을 노래한 민요라 할 수 있다. 〈風謠〉는 그 저작동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민중들이 부처님의 功德을 낚으러 온 즐거움을 노래한 불교적 민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 30대 문무왕대 沙門 廣德의 아내가 지었다는 〈願往生歌〉는 순전히 佛教의 독실한 신앙생활을 노래한 시가이다. 〈願往生歌〉는 鄕歌 25 수 가운데 均如의 〈普賢十願歌〉와 그 밖의 몇 수의 노래와 함께 그 사상적 배경이 확실한 노래다. 이는 彌陀淨土信仰으로 말미암아 발상된 일련의 노래들 (彌陀讚)⁹⁾을 가지고 있다. 〈願往生歌〉는 彌陀淨土往生을 원구하며 斷慾去愛하고 修行에 전념한 廣德이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읊은 노래다. 數十億佛土의 거리를 격해 있는 無量壽佛의 원력을 멀리 증생에까지도 미친다. 廣德은 서방으로부터의 誓願이 응답하고 나선 行者다. 無量壽佛과 廣德은 달(月)로 말미암아 서로의 메시지와 응답을 교신하며, 이로써 迷悟一如의 새 경지가 열린다. 〈願往生歌〉는 祈願의 노래다. 매개자 즉 ‘달’에 의한 간접적인 기원이다. 인간의 彌陀淨土에 희구가 본질적인 것이겠지만 현세적인 복락의 추구가 불가능하며, 그래서 身世無常함을 觀想한 피지배 일반 서민대중이 現世를 否定하고 來世를 지

8) 朴冕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 二友出版社, 1980, p. 40.

9) 金大震, 『佛寶遺集』, 慶州, 1937.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願往生 願往生 願往 樂見彌陀

향하는 彌陀淨土에의 往生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悲願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원이 응결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願往生歌〉라 할 것이다.¹⁰⁾ 〈願往生歌〉는 彌陀淨土에의 往生을 회구하며 오로지 일심으로 淨行을 닦는 廣德 자신의 지순한 歸依心을 그대로 歌化한 것이다.

제 35대 景德王때 月明師의 所作이라고 하는 〈兜率歌〉는 왕명에 의하여 佛尊의 신통력을 빌려 가짜 태양을 소멸케 하고자 부른 노래다. 《三國遺事》 月明師 兜率歌條에 景德王 19년에 해가 둘이 나타난 변괴를 물리치기 위해 月明師가 〈兜率歌〉를 지었다고 했다. 散花란 佛教經句 중에서 산문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처가 衆生을 教化하며 緣機에 따라 행하던 방법의 하나였다.¹¹⁾ 경전의 문구를 꽃에 비유하여 불가에서 행하던 供養의 儒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散花는 佛前에 供養을 드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꽃을 뿌리는 것이기도 하다. 兜率歌條에도 二日并現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신하들이 임금에게 인연있는 중을 청해 산화의 공덕을 행할 것을 권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¹²⁾ 자연의 변괴를 해소시키기 위해 경전의 산화를 읊으며, 실제로 꽃을 뿌리는 의식이 거행됐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散花의 의식은 新羅時代에 불경을 講說하는 일상의식에서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 散花의 經句는 衆生教化와 布教의 역할을 폭넓게 담당했으리라 여겨진다. 散花儀式이 新羅時代에 크게 성행했고, 중요한 의식일수록 식이 장엄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때마다 〈兜率歌〉가 불리워졌을 것이므로, 佛教儀式을 통해 신라의 시가가 장형화되고 있는 기틀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兜率歌〉와 같은 시기에 希明夫人의 作이라고 하는 〈禱千手觀音歌〉도 순전히 佛教의 靈驗을 믿는 데서 불리어진 불교적인 祈願歌이다. 또한 新

10)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蟻雪出版社, 1981, p. 96.

11) 金鍾雨, 《鄉歌文學研究》, 二友出版社, 1983, pp. 42-43.

12) 《三國遺事》 卷五, 二日併現 挾旬不滅 日官奏 請緣僧作散花功德 則可議.

羅 말엽부터 高麗 초기에 생존한 명승 均如大師의 作인 〈普賢十願歌〉 11 수도 순전히 불교의 신앙심을 노래한 종교시라 할 수 있다.¹³⁾

元聖王代 승려 永才의 〈遇賊歌〉는 가사에 담긴 사상의 일관된 흐름으로 보아 불교적인 색채를 띤 작품임에 틀림없다. 이는 《三國遺事》 卷五 避隱 第八 永才遇賊條에 전하는 노래이다. 永才가 元聖王代 인물이라 하니 新羅 下代에 지어진 것으로 이런 유의 작품들로서는 가장 후기의 것이다. 金聖培는 “永才의 〈遇賊歌〉는 彌勒淨土에의 발원을 노래한 불교가 요인 듯하다.”¹⁴⁾고 하였다.

〈遇賊歌〉는 부패혼란한 新羅下代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란 賊徒들이 대중적이고 친근미가 있는 佛教의 彌陀信仰·淨土信仰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永才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내용의 불교가요라고 할 수 있다.

신라시대에 형성된 鄉歌文學에는 어찌하여 종교시로서 佛教詩歌가 많이 불리어졌던가 하는 데 대해서 일고해 둘 필요가 있다. 鄉歌文學의 시대적 배경이 불교적 사회였으므로 鄉歌文學은 자연적으로 시대사조인 불교사상이 반영되게 되었을 것이다. 鄉歌文學에 佛教詩가 많이 있다고 보면, 또 佛教思想이 농후하다고 보게 되는 것은 현전하는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말함이나, 물론 鄉歌文學이 반드시 불교적인 내용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널리 自然과 人生, 戀慕·諧謔·哀怨·憧憬·達觀·諦觀 등 人生 百般의 機微, 내지 安民治國의 이상까지 무엇 하나 노래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함은 이미 梁柱東이 道破한 바이거니와, 그러나 혼존하는 작품을 수록한 《三國遺事》의 편자가 僧侶인지라 자연 불교에 관한 것을 더 많이 채록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新羅

13) 金起東, 〈韓國의 佛教文學論〉, 白性都博士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 東國大學校 白性都博士 記念事業委員會, 1959, p. 77.

14) 金聖培, 《韓國佛教歌謠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6, p. 35.

時代의 사회사상이 불교사상이었고, 당시에 지식계급이 漢文學者를 비롯한 僧侶·花郎들이다. 僧侶는 물론이고, 花郎 또한 불교적 교양을 가진 지식계급이었을 것이니, 현존하는 향가의 작가중 僧侶와 花郎層이 가장 많은 것을 보더라도 다분히 鄉歌文學은 佛教的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지식계급인 僧侶·花郎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한 문학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鄉歌文學에는 佛教的 생활을 노래한 불교시가가 많다는 것이다.

高麗時代가 되면 新羅의 문화를 계승하였다고 하지만, 신홍국가인 만큼 과거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야 할 구속도 없고, 또 위정자들이 中國學者의 歸化를 환영하여 한문학은 더욱 융성하였다. 여기에 鄉歌文學 곧 고유문학은 서리를 맞아 급속도로 쇠퇴하여 갔다. 均如의 〈普賢十願歌〉의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11편의 노래는 모두가 《華嚴經》 경전의 내용을 시화한 것이다.¹⁵⁾ 이의 내용은 自請誓願이며, '普賢行願品'의 내용을 均如의 입장에서 그리고 중생의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根機에 적합하도록 下向調節한 것이다.¹⁶⁾

〈普賢十願歌〉는 華嚴思想의 十種行願을 근간으로 하고 이 十種行願은 西晉때에 傳譯된 것으로 보며, 다음에 六十二讚偈가 있는데, 均如는 이것을 11수로 만든 것 같다고 金雲學은 말했으나, 自序에서 보현보살의 10종 행원품에 의거하여 著歌十一章이라 하였다.¹⁷⁾ 이 노래는 비록 佛教의 인教化를 목적으로 지은 宗教詩이기는 하나, 佛教의인 오묘한 관념의 세계를 구상적·감상적 형태로 표현해 놓음으로써 높은 서정성을 살렸다. 이 노래는 新羅 末期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한문학에 밀려 쇠퇴할 수밖에 없

15) 崔 誠, 《鄉歌의 文學的 研究》, 새문사, 1983, p. 302.

16) 楊熙喆, 《高麗鄉歌研究》, 새문사, 1988, p. 279.

17) 金雲學, 〈均如의 華嚴思想과 文學의 位置〉, 《韓國佛教思想史》, 圓光大學校, 1975, p. 452.

었던 鄭歌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장식한 작품이다. 오늘날 남아 있는 약간의 高麗詩歌라 할지라도 대부분 구전하여 오던 것이 朝鮮朝의 國字를 기다려서 정착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漢文으로 번역되어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온 것이다.

睿宗이 지었다는 〈悼二將歌〉가 吏讀로 되어 있어, 시가에서 吏讀의 사용이 아직 이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후대에 와서 忠肅王代 사람 安軸이 지었다는 〈關東別曲〉과 〈竹溪別曲〉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樂章歌詞》나 《樂學軌範》에 고려의 속가가 또한 상당수 전하고 있는데, 이들 속가류는 그 대다수가 남녀간의 애정을 그린 것이 많아, 朝鮮朝에 들어와 ‘曰詞俚’니, ‘曰淫詞’니 하여 배척을 받은 것들로서 麗末에 朱子學이 들어와서 朝鮮朝의 학자들과 같이 儒教의 道德觀·世界觀을 구성하기 전에, 高麗 때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즐겼으며, 힘있고 열있는 문학을 산출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노래들이다. 그리고 高麗 중엽에는 時調가 발생하여, 그 말엽에는 시조형식이 완전히 형성되어, 시조작품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사실이거니와, 고려시대란 시대적 특징을 배경하여 성립된 문학으로는 무엇보다도 景幾體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漢文學의 수입과 長歌의 발달로 말미암아 高麗의 문학은 완전히 貴族文學과 平民文學에 분리되었는데, 貴族層은 한문학을 향유하여 평민층이 범할 수 없는 자기들의 문학의 영역을 쌓아 특권을 행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高麗 中葉에 이르러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세력을 펴게 되니, 한문학을 향유하여 특권을 행세하던 文官들은 모두 산야에 추방되어 정치권 외에서 耆老會 혹은 竹林七賢을 사모하는 竹高七賢·江佐七賢의 모임을 조직하여 한갓 清遊宴樂에 빠져 景幾體歌라는 새로운 문학을 산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요 일반의 형성과 발전과정으로 보아 고려대에도 수많은 불교가요가 있었다고 믿는다. 다만 조선조의 抑佛崇儒政策으로 많은 佛教歌謡가 없어지고 그 중에서 僧侶들을 冒瀆하고 寺·僧관계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남겨 놓았거나 개작한 대표적인 노래가 〈雙花店〉(三藏)이다.

高麗末에 이르러, 우리 가사문학의 罷矢라고 할 불교가사 작품이 나타났으나, 懶翁의 〈西往歌〉·〈證道歌〉·〈自責歌〉 등이 그것이다. 가사체가口碑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다면 懶翁製作說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불교가요는 가송·염송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인 즉 구전될 현실적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懶翁의 가사들은 高麗朝 佛教歌謡가 마침내 이를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구비전승하던 고려대의 우리말 불교가요가 대부분 망실되어 버린 오늘날, 懶翁의 불교가사를 통해서 그의 전모를 미루어 알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朝鮮朝에 들어와서는 訓民正音의 창제를 들 수 있는데 訓民正音의 창제는 무엇보다도 국문학과 연관이 깊은 것이다. 국민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인 국문을 떠나서는 도저히 國民文學이니 民族文學이니 鄉土藝術이니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世宗大王이 正音 곧 ‘한글’을 창제한 것은 진정한 韓國文學, 즉 國文學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문학사의 첫 페이지가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龍飛御天歌〉가 출간되고, ‘童子習’을 方言으로 써서 그 뜻을 해석하게 되는 등 世祖·成宗·中宗朝에는 많은 佛經과 四書·五經 등 많은 한문문헌이 국역되었고, 麗朝 아래로 吏讀로 쓰인 景幾體歌－安軸의 〈關東別曲〉·〈竹溪別曲〉, 權近의 〈霜臺別曲〉, 卞季良의 〈華山別曲〉 등도 한글을 섞어 쓰게 되었고, 시조에서도 한글을 섞어 쓰게 되어, 한글문예가 전국민을 風靡하게 되어, 금일에 이르렀다. 世宗大王은 御製인 〈月印千江之曲〉이라는 웅작을 내어 佛教文學을 집대성시켜 놓았던 것이다. 斥佛的이었던 世宗大王이 말년에 가서 〈月印千江之曲〉과 같은 讚佛歌를 친제하였다는데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朝鮮朝는 건국 당초부터 儒教本位의 국가로 발족하여 철저하게 척불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건국 초기의 일대국책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國王 자신이 국책을 등한시하고 讀佛詩歌를 지었다는 것은 많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朝鮮朝시대의 양대 시가의 하나인 時調文學에서는 불교시가를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가사문학에서만 불교시가를 찾아 볼 수 있다. 가사 형식에 의하여 표현한 불교시가로는 근대 海印寺 승 有璣가 편하였다고 하는 《新編普勸文》 부록에 〈回心曲〉·〈別回心曲〉·〈江月西往歌〉의 3편과, 金聖培 등이 編著한 《歌辭文學全集》에 〈西往歌〉(I)·〈西往歌〉(II)·〈尋牛歌〉·〈樂道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¹⁸⁾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불교문학의 전통을 찾아볼 때 그렇게 다채롭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불교문학으로 볼 때 그것이 문학으로 등장하기에는 宗教的 價値와 文學的 價値를 具有하여야만 된다.

한국 불교문학이 또 伎樂이나 梵唄의 流傳과 더불어 불교예술의 일부 분으로 발전하여 불교가요로서 의식가에 많이 쓰였다는 한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朝鮮朝 이후 불교가 대중의 布施에 의존하게 된 뒤에 성장하였으리라는 〈回心曲〉같은 것은 문학적 사조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彌陀懺要》·《念佛普勸文》 등에 실려 있는 〈回心曲〉·〈修善曲〉 등의 가요는 불교가 세속화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사문학은 新羅의 鄉歌나 高麗의 俗歌·景幾體歌·時調 등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유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사는 국문학 유산중 타문학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18) 金聖培·朴魯春·李相寶·丁益燮 共編, 《歌辭文學全集》, 集文堂, 1961, pp. 11-22.

李相寶는 《佛教歌辭의 研究》에서 불교가사 형성의 배경적 특징을 주로 僧侶들이 念佛이라는 布教的 手段에서 만들어 냈다고 보면서, 《韓國歌辭文學의 研究》에서,

“우리나라의 불교가사도 中國의 講唱文學인 變文이나, 日本의 和讌 등과 같이 念佛·布教의 내용을 작품으로 나타내었으니, 麗末의 懶翁和尚이 지은 〈西往歌〉·〈樂道歌〉·〈僧元歌〉등이 그 효시가 된다.”¹⁹⁾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가사는 대부분 朝鮮朝에 불교의 보편화 및 대중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新羅·高麗를 통하여 형성된 귀족적 불교가 朝鮮朝에 들어 와서는 抑佛政策으로 말미암아 민중생활의 저류로 흐르면서 개인적인 大衆宗教로 신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念佛儀禮의 발달과 대중적 布施에 의존함에 따라 〈回心曲〉과 같은 불교가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III. 佛教歌辭의 展開樣相

李相寶는 불교가사의 연원은 아무래도 梵唄에서 찾아야 할 것²⁰⁾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李惠求는 〈韓國音樂發達史草〉에서,

“불교의 수입에 따라서 그 음악 즉 梵唄 또는 魚山 속칭 印度소리를 들여 왔는데 河東 雙谿寺의 비문에 의하여 서기 480년경에 中國에 건너가서 梵唄를 배워 가지고서 돌아온 眞鑒大師에 의하여 전파되었다.……이 梵唄는 歌曲·唱

19)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豊雪出版社, 1974, p. 22.

20) 李相寶, 《韓國佛教歌辭全集》, 集文堂, 1980, p. 14.

劇調와 우리 음악의 唱法에도 영향을 주었다.²¹⁾

라고 말했으나 이는 비단 우리 음악의 唱法에만 그치지 않고, 소위 歌唱을 수반하는 문학양식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그 뿐만 아니라 고려에 이르러선 시가면에 두드러진 불교의 영향이 없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이는 문현상의 인멸과 뒤늦은 국문자의 제정에서 재래한 불가피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 현존한 시가 중에서 〈雙花店〉에는 佛教的 題材가 들어 있고, 〈履霜曲〉에는 佛教的 發想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마침내 고려 말에 이르러 懶翁和尚에 의하여 佛教歌辭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발생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가사의 발생은 불교의 보편화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불교가사의 전개양상을 보면, 한국의 가사 문학은 14세기 후반기에 해당하는 고려 말의 懶翁和尚이 지은 〈西往歌〉 등에서 시발점을 찾아야 한다.²²⁾ 그런데 그 모태가 될 만한 가사체의 원형을 李秉岐는 고려 중엽의 李奎報가 지은 〈東明王篇〉이나 李承休의 〈帝王韻紀〉, 吳世文의 〈歷代歌〉와 장편 한시나 시조체에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편 한시에 토를 달아 읽든지 시조체의 초, 중장을 연속하면 이 가사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예를 들면 〈西往歌〉 중에서 ‘歷千劫而不古
하고 極萬世而長今이라’하는 따위는 바로 漢文語句에 우리말 토만 단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시조나 가사의 발생적 계기를 짐작하는 데에 좋은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²³⁾

21)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國民音樂研究會, 1957, p. 185.

22) 李相寶, 〈佛教歌辭의 歷史〉, 《佛教》 第17輯, Vol. 3-1, p. 16.

23)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79, p. 108.

14세기 말경에 이르러 불교가사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달리 고려 일반 시가의 발전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이른바 경기체가·속가·가요들의 발전적 雙貌態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4세기 말에 나타난 〈西往歌(I)〉은 총 96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머리부분과 끝부분을 보이기로 한다. 〈西往歌(I)〉은 불교가사의 효시일 뿐 아니라 한국 가사문학의 효시로 보기도 하는 작품이다.

나도	이럴만경	세상애	인재러니
무양을	싱각호니	다거줏	거시로쇠
부모의	기친얼꼴	주근후에	속절 업다
져굿닷	싱각호야	세소을	후리치고
부못괴	하직호고	단표즈	일남애
청녀장을	빗기들고	명산을	초자드러
.....
청풍이	건듯부니	넘불소리	요요호외
어와	슬프다	우리도	
인간애	나왓다가	넘불말고	어이흘고
나무아미타불			〈西往歌(I)〉

또한 이 시기에 〈懶翁和尚 僧元歌〉란 제목의 필사본이 전하는 바 그 표기가 吏讀로 되어 있어 특이한데, 그 머리와 끝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主人公	主人公我	世事貧着	其萬何古
慚愧心乙	而臥多西	一層念佛	何等何堯
昨日	少年乙奴	今日白髮	惶恐何多

.....
 於西於西 底極樂涯 速耳速耳 受耳可自
 南無阿彌 陀佛成佛

〈僧元歌〉

15세기의 불교가사는 특별한 변화는 찾을 수 없고 다만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李相寶는 15세기의 불교가사를 ‘계승기’의 불교가사라 부른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지어진 불교가사는 오늘날 전해져 오는 것이 별로 없으나 西山大師 休靜이 지은 〈回心曲〉이 명맥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別回心曲〉·〈特別回心曲〉·〈續回心曲〉 등을 생산케 했다. 불교가사 중에서도 가장 널리 불리워진 〈回心曲〉은 순 한글로 되어 있는데, 〈回心曲〉은 壬辰倭亂·丙子胡亂을 거치며 淘湧해진 신도들의 신앙심을 정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년디이의	분훈후에	삼나만상	일어나니
유정무정	삼긴얼꼴	년단면목	질묘호터
범부고녀	성인되문	오작사ーム	최귀호다
요순우탕	문무주공	삼강오상	팔조목을
태평세에	장엄한니	금슈상에	천화로다
.....
년화티예	올라안자	묘쥬청다	부어먹고
빅우거를	임운동등	조적이	노닐면서
태평곡을	부르리라	나무아미타불	
나라리리리라라		나무아미타불	〈回心曲〉

17세기에 와서 枕肱和尙은 物外閑情을 불교가사로 폐냈으니 그의 문집 《枕肱集》에는 〈歸山曲〉·〈太平曲〉·〈青鶴洞歌〉의 3편이 수록되어 전

한다. 그중 〈太平曲〉은 끝부분에 “라라라 리라라”를 덧붙여 놓았는데, 西山大師의 〈回心曲〉에도 “나나리 뇌나라 태평곡을 부르리라”가 있으니 그 계승의 전후를 알게 한다.

避後爲憎	鳥鼠僧아	誤着袈裟	전혜마라
道伴禪朋	아니붓고	割眠宗師	참례호야
法語六段	바히몰라	一介無字	둘혜내닉
.....
大悲綱	벗씨펴	欲海魚를	건져내여
涅槃岸의	올려두고	라라라	건져내여
太平曲을	불니리라	벗님네	物外丈夫을
다시어듸	구휼고		〈太平曲〉

18세기에 들어서면서 三淵 金 昌翕이 〈念佛歌〉를 지어 유학자로서는 유일한 불교가사 작자가 되었다. 또 龍巖大師의 〈草庵歌〉, 印慧信士 智瑩의 〈彙說因果曲〉·〈修善曲〉·〈勸善曲〉·〈參禪曲〉은 당시의 불교가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불교가사는 원숙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문화의 요람기로서 실학사상의 팽배와 서구의 과학문명이 수입되기 시작한 때인 만큼 가사문학도 그 시대적 영향을 입어 서민층과 여류들의 창작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응당 많은 불교가사 작품들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오직 乾鳳寺에서 東化和尚이 지은 〈勸往歌〉만이 전함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우리 나라는 새로운 서양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가시문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두 가지 양상이 전개되는 바, 그 하나는 종래의 형식을 그대

로 담습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단편형식으로 새로이 변모한 소위 開化歌辭라 할 수 있는데, 이때 佛教歌辭로는 鏡虛堂 惺牛禪師가 〈參禪曲〉·〈可歌可吟〉·〈法門曲〉의 3편을 지어 그의 문집 〈鏡虛堂集〉에 수록하였다. 또한 鶴鳴禪師가 〈圓寂歌〉·〈往生歌〉·〈新年歌〉·〈參禪曲〉·〈解脫曲〉·〈望月歌〉 등 6편의 가사를 남겨 개화기를 대표적인 분이라 할 수 있다. 또 崔就虛는 1912년 9월에 慶北 豊基郡 鳴鳳寺에서 〈歸一歌〉를 지었고, 李應涉이 1928년 5월 〈釋尊一代歌〉를 지었다. 그 외에도 月齋 金定慧는 1912년 8월에 〈大邱桐華寺布教堂紀念唱歌(紀念歌)〉를 지었는데 개화기의 일반 창가와도 비슷하지만 이는 장절로 나누지 않고 잇달아 놓았다.

어와우리	同胞들아	오날날을	알으시오
明治四十	四年度에	奉佛한던	紀念일세
우리世尊	釋迦如來	大慈大悲	誓願으로
三界火宅	苦海中에	衆生濟度	하시고서
.....
同胞들아	同胞들아	銘心不忘	잇지마소
紀念旗를	눕히들고	萬歲흔번	불너보세
			〈紀念歌〉

退耕 權相老는 개화기 아래 한국 현대 불교계의 거성이었는데 〈涅槃歌〉·〈聖誕慶祝歌〉·〈成道歌〉·〈한도권면가〉 등을 지어 불교가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불교창가의 효시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釋門儀範》에 실린 權相老의 〈聖誕慶祝歌〉는 모두 6장으로 분장체인데 후렴구로 “만세만세 만만세는 우리불교 만만세요 만세 만세 억만세는 우리교당 억만세라”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니 종래의 가사형태와는 상당히 변모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제1장인데

후렴구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다.

世界鑿判	億千劫에	第一聖人	누구신가
三千年前	印度國에	淨飯王宮	눕하서라

〈聖誕慶祝歌〉

그리고 불교가사 중에서 좀 색다른 가사들이 있다. 곧 〈送女僧歌〉와 〈僧答辭〉·〈再送女僧歌〉와 〈僧再答辭〉 등 4편의 연작가사가 있는데, 그 중의 〈送女僧歌〉는 한 젊은 사나이가 여승을 짹사랑하여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어와	보완디고	저선사	보완지고
반갑기도	괴디웁고	깃부기도	측량웁네
여자의	교용으로	남자복색	무솜일고
.....
이거시	뉘탓인가	불상토	안히호가
겨근듯	싱각호여	다시금	혜여보소
대장부	훈목숨을	살려쥬면	엇더헐고

〈送女僧歌〉

한편 李泓宣이 지은 〈人生幻舞〉는 1956년에 지은 것인데, 모두 130구로 되어 있으니 처음과 끝부분은 다음과 같다.

불자들아	잠깨어라	중생들아	꿈깨어라
하늘땅이	빛을잃고	해와달이	어둡구나
.....
행주좌와	끊임없이	봉창염불	하고보면
구경성불	의심없네	어허지고	불러보세
나모	살탈마	푼다리카	수드라

〈人生幻舞〉

불교가사는 오랜 시대에 걸쳐 수많은 작품이 지어졌는 바 이제까지 발굴되고 정리된 것이 70여 편이나 된다.²⁴⁾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불교가사는 고려 말기인 14세기 말에 懶翁和尚의 〈西往歌〉(I)(II) 등에서부터 출발하여, 계승기인 16세기에 이르러 西山大師의 〈回心曲〉 등에서 그 명맥을 잇고, 전성기인 17세기에 이르러 枕肱의 〈歸山曲〉 등이 나왔고, 이어 18세기에는 金昌翕·龍巖·智瑩 등의 작품이 나왔으며, 원숙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에는 동화의 〈勸往歌〉만이 전하고, 개화기라 할 수 있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鏡虛의 〈參禪曲(III)〉 등을 위시해서 鶴鳴·勸相老·崔就虛 등의 작품이 나왔다.

VI. 佛教歌辭의 文學史的 位置

佛教歌辭가 가장 많이 불리어진 시대는 新羅時代이다. 新羅時代에는 '新羅歌謠'란 문학이 형성되었는데, 우리는 新羅歌謠에서 佛教의 信仰生活을 노래한 시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불교적 내용을 띠고 있는 작품을 저작연대순으로 보면, 〈風謠〉·〈願往生歌〉·〈兜率歌〉와 新羅 말엽부터 高麗 초기에 걸쳐 활동한 명승 均如大師의 작인 〈普賢十願歌〉 등이 있음을 알았다.

新羅時代에 불교시가가 많이 불리어졌던 이유는, 新羅歌謠의 시대적 배경이 불교적 사회였으므로 자연적으로 시대사조인 불교사상을 반영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新羅歌謠에 불교시가 많이 있다고 보며, 또 불교사상이 농후하다고 보게 되는 것은 현전하는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말함이나, 반드시 불교적인 내용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혼존하는 작품을 수록한 《三國遺事》의 편자가 僧侶階級인지라 자연 불교에 관한 것을

24) 李相寶, 〈淨土에의 没入과 歸依〉, 《佛教文學研究入門》, 同和出版社, 1991, pp. 185-201.

더 많이 채록했으리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新羅時代의 사회사상이 불교적 사상이었고, 당시에 지식계급이 한문학자를 비롯한 僧侶·花郎들이었을 것이라면, 僧侶는 물론이고 花郎 또한 불교적 교양을 가진 지식계급이었을 것이니, 혼존하는 新羅歌謡는 불교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지식계급인 僧侶·花郎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시킨 문학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가요는 불교적 생활을 노래한 불교시가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 新羅를 계승한 高麗時代에도 佛教의 왕성시대를 이루하였으므로 佛教文學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추상할 수 있으나, 혼전하는 문학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佛教思想과 불교의 信仰生活을 노래한 그런 작품은 몇 작품 되지 않는다.

“高麗의 시가에는 표면상 佛教的 색채가 적다 하지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르는 高麗詩歌의 風趣에는 역시 佛教의 영향이 많다. 대체로 高麗의 시가에는 애처롭다 하는데 이 ‘애처럼’이란 곧 佛教에서 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佛教는 인생의 煩惱를 논하고 靜寂한 暈想에 의하여 인생을 부정하기를 念願하였다. 따라서 人生의 無常을 느끼고 慾世의 되기 쉬우나, 그러한 人生觀, 그러한 생활에서 우리나라온 문학이 애처롭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世宗大王이 지으신 〈月印千江之曲〉이라는 응작을 내어 佛教文學을 집대성시켰다. 이 작품은 〈龍飛御天歌〉와 아울러 일대 장편 서사시로서 특기할 만한 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朝鮮時代의 2대 시가의 하나인 시조문학에서는 佛教詩歌를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가사문학에서 佛教詩歌를 찾아볼 수 있다. 가사형식에 의하여 표현한 불교시가로는 근대 海印寺 승 유기가 편하였다고 하는 《新編普勸文》부록에 〈回心曲〉·〈別回心曲〉·〈江月西往歌〉의 3편과 김태

준이 편한 《朝鮮歌謡集成》에 〈西往歌〉·〈尋牛歌〉·〈樂道歌〉의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불교사가로서의 가사작품이 많이 있는데, 모두 70여편에 달한다.

가사문학으로서의 불교시가는 佛教的인 教化와 信仰生活을 고취한 작품임을 알 수 있으니, 이들 모든 작품은 宗教詩로서의 佛教歌辭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佛教歌辭는 懶翁禪師에게서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면히 계승되어 왔었다. 특히 佛教歌辭는 가사문학의 요람으로서 후대 일반 유학자나 부녀자들의 가사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佛教歌辭는 崇儒抑佛이라는 朝鮮朝의 정책에 눌려, 그리고 불교 자체의 비사회성으로 인해 숫자적으로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지 않다.

佛教歌辭는 天主歌辭나 東學歌辭 등 여타의 종교가사가 다 그렇듯이 佛教의 교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세사에 집착하고 있는 衆生에게 佛教에 歸依할 것을 勸獎하는 한편 작가 자신도 인간 사의 온갖 煩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似而非 僧侶를 훈계하고 僧侶 본래의 사명인 衆生濟度의 염원에 충실할 것을 노래하는가 하면, 世間名利의 虛無함을 절감하고 청빈으로 즐거움을 삼아 자연과 벗하며 지내겠다고 하기도 하고, 애욕에 찬 女僧을 통해 정화된 감정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 주기도 한다.

歌辭文學을 일으킨 佛教歌辭의 원천은 新羅나 三國時代의 思腦歌인 鄉謡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이은 高麗時代의 俗謡도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외에도 佛教歌辭는 역대의 禪僧 大德이 관계한 歌頌類의 漢謡 등에도 뿌리를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佛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歌頌化하는 일은 佛教의 오랜 전통으로 보인다. 太古和尚 普遇의 작품 〈太古庵歌〉나 懶翁和尚의 文集인 《懶翁集》에 실려 있는 懶翁의 가송을 보면, 이들이 口誦 위주의 노래로 제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長短句로 지었다는 자체가 口誦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여, 전편을 음독할 때 저절로 가요적 리듬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 歌頌은 高麗의 승려들이 中國에 갔을 때 그곳의 僧侶들과 교제의 매체로 널리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高僧들 사이에도 오묘한 사상을 전달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었던 것 같다.

歌頌이 구송 위주로 됨으로써 여기에는 ‘羅羅里里羅羅’, ‘阿耶阿耶 如是如是’와 같은 助興句가 삽입되기도 했다. 이것은 鏡虛堂의 〈可歌可吟〉에 나오는 助興句인 “나나리 뉘나리로 태평가를 불러보세”라든가, 龍巖和尚의 〈草庵歌〉에 “태평곡을 부르리라 나나리리나나하니”와 같은 助興句와 긴밀한 수수관계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불교가사에는 龍巖和尚의 〈夢幻歌〉처럼 漢文懸吐式의 작품도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가사형성의 초기에 漢文歌頌에 懸吐한 것이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기도 한다.

佛教歌辭는 新羅時代 불교적 분위기에서 형성되어 왔던 鄉讚을 일단의 모태로 하였고, 高麗朝에 들어와 鄉讚의 세력이 약화되면서부터는 당시 민중들 사이에 크게 유전하였던 俗謠를 새로운 동반자로 맞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佛教歌辭는 주로 佛僧들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僧侶들 사이에 유행했던 漢讚 歌頌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佛教歌辭는 당시 漢詩나 俗謠나 같은 양식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복잡다기한 감정의 흐름이나 사실, 상황 전달 및 표현을 자유롭게 드러냄으로써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가사가 단순히 教理의 전달이나 布教의 수단에 머무르는 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켰던 것에 비해서, 표현이나 사상전달의 자유분방함으로 해서 歌辭는 朝鮮朝에 들어와 士大夫들에 의해 더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었다. 이후 歌辭는 散文의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중요한 문학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佛教歌辭는 高麗 後期 새로운 역사의 이행기에 문학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시기에 나타났다. 문학에서 당시는 전시대까지의 중심양식이었던 鄉歌가 사라지고, 景幾體歌와 時調가 나타나 시험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景幾體歌는 개인적 감홍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時調는 景幾體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길이가 짧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歌辭는 두 양식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을 수 있었다. 佛教歌辭가 歌辭文學의 선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지식층이었던 僧侶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문제점을 잘 포착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V. 結論

高麗 말기 懶翁和尚의 〈西往歌(I)〉로부터 출발하여 朝鮮朝 시대를 거쳐 최근세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온 佛教歌辭는 주로 승려들에 의해 지어져 불교 신도들에게 佛德을 예찬하고 佛法修行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佛教歌辭는 가사문학의 요람으로서 후대 일반 유학자나 부녀자들의 가사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新羅와 高麗 초기에 주로 불교적인 내용을 향찰식으로 표기한 鄉歌가 있었던 것이 朝鮮朝에 와서 한글이 창제되면서 국문으로 표기된 불교가사가 많이 지어졌다. 또한 삼국시대에 佛教가 전래된 이래 新羅와 高麗에서는 국교로 신봉되었으나 朝鮮朝에 와서는 崇儒抑佛정책으로 위축되었으나 왕실에서나 민간에서는 꾸준히 신봉되면서 민중포교를 위한 불교가사가 많이 지어졌다.

佛教歌辭는 14세기 말경 민중포교 즉 불교의 세속화 과정에서 고려가

요의 발전적 변모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懶翁의 〈西往歌〉를 시발점으로, 계승기인 16세기에는 西山의 〈回心曲〉이 명맥을 이어주고 있고, 전성기인 17세기와 18세기에는 枕肱의 〈太平曲〉이 있고, 金昌翕의 〈念佛歌〉, 龍巖의 〈草庵歌〉, 智瑩의 〈真說因果曲〉 등이 나왔으며, 원숙기인 19세기에는 東化의 〈勸往歌〉만이 전하고, 개화기인 20세기에 들어와서는 鏡虛의 〈參禪曲〉, 鶴鳴의 〈圓寂歌〉, 權相老의 〈涅槃歌〉, 崔就盧의 〈歸一歌〉 등이 나왔다.

佛教歌辭는 天主歌辭나 東學歌辭 등 여타의 종교가사가 다 그렇듯이 佛教의 교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세사에 집착하고 있는 衆生에게 佛教에 归依할 것을 勸獎하는 한편 작가 자신도 인간사의 온갖 煩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주로 佛僧들에 의해 창작된 佛教歌辭는 佛教의 教理傳達이나 布教의 수단에 머무르긴 하였으나, 天主歌辭·東學歌辭 등의 다른 布教歌辭보다도 대중 교화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했다고 보면, 韓國文學史의으로는 歌辭文學의 원동력이 되었고 士大夫歌辭·平民歌辭·閨房歌辭와 더불어 歌辭文學의 한 갈래를 이루기도 하였다. 당시 漢詩나 俗謠와 같은 양식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복잡다기한 감정의 흐름이나 사실, 상황전달 및 표현을 자유롭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權寧徹, 〈閨房歌辭 各論〉, 蟭雪出版社, 1986.
- 具壽榮, 〈懶翁和尚과 西往歌 研究〉, 《國語國文學》 第62·63 合并號, 1973.
- 金起東, 〈國文學의 佛教思想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金基卓, 〈懶翁和尚의 作品과 歌辭發生 源流考察〉, 《嶺南語文學》 第3輯, 嶺南語文學會, 1976.

- 金琫永, 〈未發表의 枕肱歌辭에 對하여〉, 《國語國文學》 第20號, 國語國文學會, 1959.
- 金聖培, 〈韓國佛教歌謠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金雲學, 《韓國佛教文學 研究》, 玄岩新書, 1970.
- 金鍾雨, 〈懶翁과 그의 歌辭에 대한 研究〉, 釜山大 論文集 第17輯, 1974.
- 金周坤, 〈回心曲 研究〉, 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4輯, 1986.
- , 〈懶翁歌辭에 나타난 净土思想 研究〉, 慶山大學 論文集 第8輯, 1990.
- , 〈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 研究〉, 《大邱語文論叢》 第9輯, 大邱語文學會, 1991.
- , 〈韓國佛教歌辭研究〉, 大邱大 博士學位論文, 1991.
- , 〈佛教歌辭에 나타난 净土思想考察〉, 《大邱語文論叢》 第10輯, 1992.
- , 〈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研究〉, 香山 卞廷煥博士 華甲紀念《韓國學論叢》, 1992.
- , 〈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研究〉, 《嶺南語文學》 第21輯, 1992.
- 柳玗善, 〈歌辭에 나타난 思想的 影響에 대하여〉, 全南大 論文集 第14輯, 1968.
-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1.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 · (中) · (下), 景仁出版社, 1968.
- 李丙疇, 〈懶翁和尚의 三歌와 佛教歌辭〉, 東國大 國語國文學論文要旨 第2輯, 1985.
-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74.
- , 《韓國佛教歌辭全集》, 集文堂, 1980.
- , 〈佛教歌辭의 研究〉(上), 東國大 國語國文學論文集 7 · 8輯, 1969.
- , 〈佛教歌辭의 研究〉(下), 明知大 論文集 第3輯, 1970.
- , 〈韓國佛教歌辭의 歷史的 考察〉, 明知大 論文集 第4輯, 明知大,

1971.

———, 〈淨土에의 没入과 歸依〉, 《佛教文學研究 入門》, 同和出版社,
1991.

崔康賢, 〈鏡虛禪師와 그의 歌辭에 대한 考察〉, 首都工大 論文集 第3輯,
1971.

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佛教文學研究》(上)·(下),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8.

韓基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